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북토크 &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 '다시 만난 세상'에서, 광장의 여성과 노동이 만나!

일시: 2025년 2월 8일 오전11시 - 오후 2시

장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3-1 4층)

\*1부 북토크 녹취록에 이어 2부 집담회 녹취록을 실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1부. 북토크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대담 진행자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이야기 손님: 나윤옥 (한화오션 노동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권영숙 소장: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노동연구소 소장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공동주최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 주관자로 소개된 민주주의 노동 연구소 민노연 책클럽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전체 행사 취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토크는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라는 책에 대해서 ”조선소에서 노동과 여성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갔는가“ 라는 주제를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북토크를 이 책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민책클럽에서 저희가 젠더 \* 계급 혹은 노동 \* 여성 이란 주제로 그동안 꽤 오랫동안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책들도 꽤 많습니다. 페드레치의 <캘리빈과 마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등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계급문제뿐만 아니라 젠더에 관한 문제 그리고 단지 계급과 젠더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교차하는가 문제, 즉 2천년대 초반부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는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의 문제의식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제 2부 남태령X여성X노동자도 마찬가지로인데 ”크로스“는 다양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도 화학적인 작용이 다양하잖아요.

사실 궁금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그 크로스는 과연 어떤 크로스인가 그 교차는 어떤 교차성인가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책클럽에서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토크에서 조선소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 11명의 인터뷰를 기록한 이 책을 다뤄보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 12월 3일 계엄 이후 국면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계엄과 탄핵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제가 볼 때 진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을 진부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좀 놀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계엄의 불법성을

문제삼는 것과 계엄 자체가 왜 선포되어야 하는가를 문제삼는 건 다른 문제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계엄을 탄핵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많은 지점들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뻘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와 87년 체제의 모순들, 굵을 것들이 낡은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는 12월 1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성명서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뭔가 새로운 것, 이 정국, 이 위기, 이 비상사태 속에서 내란과 변란등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물려가 있는 100만 대중은 그다지 새롭거나 놀랍지 않은데 12월 21일 남태령에 등장한 그 연대자들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탄핵 국면에서 유일하게 창발적이고 어떤 낯선 새로움이 그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연대 그다음 탄핵 국면에서 경험들을 공유하는 이런 종류의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의도 광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광장의 집회를 가장 주목하거나 기억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태령을 뿔더라고요. 흥미롭죠. 근데 그 남태령에 나타난 시위대는 농민시위에 연대하기 위해 나타났고, 정치적 민주주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낯선 새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1박2일 연대텐트를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건 마치 2011년 영도 한지중공업으로 가는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겠지요

환기하자면 저는 2011년 2차 희망버스 도상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과 2024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태령과 노동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여성이 있었어요. 2030 대부분 20대 같기도 한 2030 여성들이 또 새로움이었어요. 2011년에는 그들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386들, 4050대가 주축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이들이 결국 아까 말했던 남태령과 노동을 연결하고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태령 연대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북토크의 이야기 손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운옥님은 거제통영고성고성 하청지회에서 제가 만난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스킵하고 인사를 했죠. 제가 거통고지회와 조선네트워크에 여러번 노조 교육을 가기도 했습니다. 나운옥 동지는 항상 제가 주목했던 분이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단단하고 뭔가 자신의 내공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책에 인터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나운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2023년 한화오션으로 바뀐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노조는 지금 파업 중이라서, 작업을 거부하시면서 현장에서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는 거리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책을 보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11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부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조선소라는 특징이 정말 수없이 많은, 200개 이상의 직종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조선 노동 안에서도 노동과정이 매우 세분화돼 있고, 다양한 노동이 있다고요. 나윤옥님께 전체적으로 조선소 노동, 조선소에서 여성노동, 마지막으로 노조활동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개를 겸한 첫번째 질문은 나윤옥님 인터뷰에 나오는데요, 바로 "여자가 조선소에서 뭐 해".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이런 말들을 옛날에는 더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조선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선소 노동자가 되셨습니까?

나윤옥: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요. 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 발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판 일이라고 하면 주로 남자들이 하는 업종이에요. 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자들이 그 발판을 밟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리고 드레십이라고 있어요. 외국 선주 측에서 이 발판 작업을 하는데 왜 하부 감시가 없냐, 하부 감시 세워라 라고 해서, 사람 못 들어가게 펜스 치고 지켜라 해갖고 제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권영숙:

조선소 노동자가 되신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윤옥:

조선소는요. 제가 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친구가 1년 전에 거제 조선소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러 우리 둘째 셋째 딸을 데리고 놀러 내려갔어요. 놀러 내려갔는데 야 여기 일해 보니까 괜찮아 돈도 많고 돈도 잘 꽤 많고 잘 벌린다, 여기 내려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그럼 한번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다음 달에 내려왔어요.

권영숙:

일하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2015년, 16년 구조조정과 불황이 저소득 불황이 아주 심해지면서 인력의 거의 80%까지 이제 감원되거나 해고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받아왔던 근로 조건, 합의했던 근로 조건이 완전히 그냥 거의 바닥을 치게 되면서 사실은 생계조차도 힘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소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비정규직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걸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걸 의식을 안 하시면 일했다고요. 2015년, 16년부터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나윤옥:

네 맞아요. 제가 2013년에 들어갔거든요. 2013년도에는 상여금이 550%가 있었어요. 근데 2016년 15년에 일부 줄이고 16년에 없애고, 지금은 상여금이라는 게 일도 없어요. 550%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이 없어지면서도 우리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못 지켰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울컥하는 게 올라와요. 너무 너무 아쉽고요.

권영숙:

그런 과정 속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만들어졌죠. 그런 울분과 분노 박탈감이 노조 만드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죠. 하지만 그전에 만들어 났으면 싶은 아쉬움인 거죠.

많은 사업장들이 노조 없이 지내거나 노조가 있으면서도 어용 상태로 있다가 회사가 칼을 빼들어 구조조정을 하거나 감원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화 시키면서 근로조건을 완전히 박살을 내거나 악화시키면 그때서야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라도 노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생존권 투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조선소에서는 내부에 특히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조선소의 업종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조선소의 내부 노동 차별 혹은 위계 문제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접공은 자신들을 기술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노동에 대해서는 다르게 여기고 차별한다고 하는데요.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나윤옥:

조선소의 차별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요. 일단 직영하고 하청하고 차이가 나고요.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가 나고요. 직영하고 하청 차이는 임금도 차이 나고 복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임금 차이가 많습니다. 한40% 못 받아요, 직영은 우리보다 40~50%가 많아요. 상여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550% 다 깎였고 2023년에는 투쟁으로 우리가 50% 만들어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제가 일하는 분야나 저 같은 성격은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같이 맞서 싸우니까. 저는 못 느끼는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4층 복지관이 1층 남자 화장실 2층 남자 화장실 3층 남자 화장실 그리고 4층에 가야 남자 여자 같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있는데 여자 화장실도 없고 여자 남자 화장실 2개가 있으면 여자 화장실 저기 가서 하나 있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여자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탈의실 같은 것도 남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탈의실 하나 줘도 여자들은 하나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권영숙:

생리현상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경우는 제가 다닌 단과대학에는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80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듯한데요.

사실은 조선조의 여성 노동도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남성들의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조에는 70년대부터 여성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조선소에서 최초의 비정규 노조가 한라중공업에서 만들어졌을 때도 여성 노동자가 조합원 중에 있었고 투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오니까 남녀 직급을 단일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직급 단일화하면서 변화는 좀 있었나요? 여성과 남성 신규 호봉을 같이 하면서 말입니다.

나윤옥:

아니요. 전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권영숙:

네 그렇죠. 질문을 한 이유입니다. 비정규 노동의 경우는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내하청회사에게는 정규직처럼 채용되지만 원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상용 고용에서 작동하는 그런 근로 조건의 모든 룰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급 단일화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군 안에 포함됐다면 들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성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인 한 말입니다. 80년대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남녀 성별 분리 직급이 이슈화되었습시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사무직은 특히나 심하죠. 은행 직종 생각하면 됩니다. 직급을 단일화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단지 차이는 군대 가산점뿐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산점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을 만들어내면서 이 변화가 무의미해졌어요. 비정규직 노동의 여성이잖아요.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직급의 단일화와 호봉의 단일화 자체가 의미가 반감되었어요.

그래도 조선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신입 때 임금은 같이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가요?

나윤옥:

요즘 조선소에서 노동을 시작할 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최저시급을 받고 들어가요. 그 밑으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깎은 거예요. 최저시급에서 10년20년 해도 몇백 원 많아야 천원 차이 나요. 최저시급에서 10년 하든 20년 하든 그 위로는 안 올라요. 그러니 같긴 한데,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권영숙:

그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데 시작할 때 임금 인상을 하면 조선소는 10원씩 인상한다잖아요. 퍼센트가 아니에요. 정액10원 인상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급이니까 그리고 나서 해봤자 몇백 원 이렇게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 한국 조선업종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엄청나게 악화됐고 그것을 대부분 비정규 노동이 감당하면서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대로 최저임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급이 됐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도 되게 시사적입니다. 자본은 그런 방식으로, 즉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나누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면서 직급의 단일화나 호봉제 등 근로조건 단일화를 다 막아서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조선소 여성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소의 여성 노동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이 책에 있어요. 알 수 없는데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구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노동 연구자인데 사실 우리도 몰라요. 실제로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회사는 회계 공시에서 온갖 수익과 영업이익에 관해 발표하지만 노동자 구성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기준이 얼마인지도 쓰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비정규직 노조 활동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다른 조선소의 경우를 통해 유추해보면요. STX인 것 같은데 거기엔 조선소내 여성노동 비율이 14.5%라고

하더라고요.  
한화오션은 어때요?

나윤옥:  
한화오션의 경우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성노동이 10%는 넘을 것 같아요.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노동은 항상 이렇게 숨겨져 왔어요. 드러내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권영숙:  
맞아요. 책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가장 가장 지워져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쫓겨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16년에 80% 이상의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만 5천 원까지 육박했던 노동자들이 1만명 대로 떨어졌는데, 아마도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시절에 해고당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셨나요?

나윤옥:  
저는 악랄해요.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가버렸지요. 처음에는 이제 시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당제로 바뀌요. 야 일당 얼마 더 줄 테니까 일당제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시급으로 받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이렇게 일당제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자르고요. 그때 여자들은 그렇게 시급제로 일당제로 많이 바꾼 뒤 한꺼번에 그냥 내보냈어요. 일당제야 계약을 따로 안 하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내보낼 때 과감 없이 내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권영숙:  
조선소 여성 노동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선소 노동의 특징이나 그 변화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을 만듦으로써 여성 노동의 문제를 비정규직화시켜서 여성이라는 걸 지워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점에서 보편적이기도 한 거잖아요. 보편적인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비정규직이 없다면 여성 노동은 당연히 정규직종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책에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조선소 웰리브 노조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주택사업부의 정규직 노동자였어요. 청소, 취사, 세탁 노동자들이죠. 그게 흔히 여성의 노동이라고 간주되는, 성별 분업 속에서 여성의 노동으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그분들부터 여성으로 채우고 그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운 거죠.

나윤옥:  
예 맞아요. 직영으로 갖고 있다가 별로 돈이 안 되는 직종이잖아요. 분명히 노동자들 밥은 먹여야 되고 서비스는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 노동은 자본에게는 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감없이 남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직영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웰리브 소속으로 되면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권영숙: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고 결국에 가장 주변에 있다고 간주되는 노동 그다음에 가장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부터 정리해고를 하고 비정규직화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여성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자동차의 <밥.꽃.양>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해고의 법적 도입이후 최초의 정리해고는 누구다? 바로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 그때 당시에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정규직이 한국 노동체제의 가장 골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때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또 역설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위치인가와 관련 책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세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남성 노동자들이 맡긴 옷들을 세탁을 하는데 그 남성노동자들을 "고객님"이라고 부른다고요? (나윤옥: 네 맞아요). 그 말이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칭을 부를 때에 있어서도 남자들에게는 이름을 부르지만 여자들에게는 "이모"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또 옆에 있는 여성을 놔두고서 남성 노동자들간에 대화중 남자를 비하할 때 "\*\*\* 같은 년"이라고 표현한다는 등 이 세 가지가 제게 눈길을 끌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나윤옥:

제가 식당 가서 느낀 거는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좋은 행동만 하면 좋은데 이것들은 직영들이라고 밥을 먹고 나서 똑같이 국 그릇에다가 합쳐서 이렇게 놔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짜내 싱겁네 온갖 타박 놓는 짓거리들은 다 저거들이 다 해요. 집에서 마누라한테는 못하죠

권영숙: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여성 노동에게는 또 성차별 의식 속에서 더 강화돼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나요?

나윤옥: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권영숙:

2부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하고요. 모든 분들한테 다시 조선소에 가서 일하고 싶냐는 질문에 한 명 빼고 전부 다 안하겠다고했어요. 힘들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했을 것이다. 근데도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심지어 노동으로 취급받지도 않을 것 같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자기 노동에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조선소에서 안전이 중요한데도 그 안전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을 같은 노동자들조차도 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더군요. 나윤옥님도 발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윤옥:

우리가 발판이 없으면 정말 일을 할 수 없는데가 조선소예요. 집 짓는 데도 그렇고 조선소도 그렇고 발판이 없다면은 정말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발판 깔아갖고 저 사람들이 참 안전하게 일을 하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또 발판을 해체하고 이럴 때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체해서 배를 예쁘게 만들어 갖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발판 깔아줘서 저만큼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뿌듯해 합니다.

권영숙:

생산의 주역은 노동이란 말이 생각났었어요. 조선소 노동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질문인데 조선소 여성 노동자이면서 노동조합을 하는 분들이 또 그중에서 소수가 있잖아요. 노조 활동을 왜 시작했는데 이야기는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윤옥:

제가 만약에 그때 2015년 16년에 노조 활동을 했다면 상여금을 뺏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선소를 다니는 한 노조 활동을 할 겁니다. 한 가지라도 단지 한 가지라도 아주 적은 거라도 노조 활동으로 서서히 바뀌는 게 보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 그 하청 노조가 없을 때는요 산재 은폐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고 나면 트럭에다 싣고 나가서 병원에 치료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눈을 부라리고 여기저기서 다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재 은폐 이런 게 완전히 줄었어요. 작게 다쳐도 엠블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또 노조가 없다면 지금 더 타락할 거예요. 더 나쁜 길로 갈 것 같아요.

권영숙:

사실 거통고지회 노조는 매우 약합니다.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거리 투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 파괴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한국 사회가 노동 배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이는 탄핵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탄핵은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1일 파업을 했는데 결과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들이 어떤 느낌인가 하는 면이 있죠. 노조는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결과로써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잡히지 않았을 때 노조에 대한 열패감 내지는 뭐랄까 회의감 같은 게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년동안 지금까지 버티면서 버티는 투쟁을 하신 것이고 이제는 이기는 투쟁을 하셔야죠.

나윤옥:

저는 2022년 51일 파업을 실패했다고 안 보는 사람이고요.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크게 받은 거는 없어요. 크게 얻어온 건 없지만 금속노조 도장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싸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졌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숙:

이 책과 관련해서 꼭 내가 질문을 하고 싶거든가 한마디 하고 싶은 분 두 분만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참석자: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어떠한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나윤옥:

우리 거통고 조선하청지회가 그만큼 또 큰 투쟁을 했고 그 기록을 남기고 또 이제 잠자는 여성들의 노동을 좀 깨우고 싶었어요. 여자들은 괜히 계속 가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바깥에서 조선소에 여자들이 그런 일만 하는 줄 아시는데 각 분야에 걸쳐 인터뷰를 하신다 그러길래 좋습니다 응했습니다.

권영숙: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여성은 있다. 여성 노동자는 있다. 그리고 조선소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운동의 일원이기도 하다. 거기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북토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부.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패널 : 권영숙(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좌장), 최다한(남태령 노동연대자), 나윤옥(조선소 노동자), 최도은(민중가수) 임정득(민중가수)

권영숙:

집담회 "남태령X 여성 X 노동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하면서 남태령의 2030 여성들의 노동자성에 주목합니다. 남태령의 연대자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가 북토크의 문제의식을 이어서 2부 집담회에 걸쳐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전체 행사 취지에서 말했지만, 2011년 희망버스 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던 '노동의 사회적 연대운동'이 2024년-25년 남태령 연대자들의 노동연대와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계엄 이후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태령 참가자들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 자체가 얼마나 분열적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태령의 소녀"로부터 시작해 "키세스 전사" "우주 전사", 또 "은빛 요정"까지요. 참고로 저는 고민을 한 끝에 처음부터 '남태령 연대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점 이해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태령 연대자들의 노동자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웹진 <전망과 실천>에 게재한 경제노동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글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들 남태령 2030 여성연대자들이 왜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들 궁금하잖아요.

이들이 나타난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변덕도 주관적인 어떤 의지만도 아니고 단지 한순간의 열정도 아닌, 면면이 흐르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게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길 바라구요.

그래서 남태령과 노동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파편화된 이름으로 유령처럼 존재했던 민주적 주권자들이 이름을 부여받은 계기가 됐죠. 그렇지만 그 이름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태령 참가자라는 이름은 익숙해졌지만 그 이름들은 다시 재혼용되거나 스스로 구축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탄핵 광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제쳐놓고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한번 돌이켜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자연 속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노동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연구소는 오늘 북토크와 집담회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노동의 두 갈래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노동을 만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주의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동도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한계도 많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노총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고마우나 동시에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원들도 참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오늘 우리는 사회적 연대와 노동이 나아갈 길 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질문지를 미리 보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소개입니다. 나의 정체성 밝히기라고 잡았는데요. 그다음은 탄핵 국면에서 남태령이란? 세 번째가 남태령X여성, 남태령X노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태령X여성X노동 3가지를 이어가면서 관계성을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

베라:

저의 정체성을 적어봤는데요. 현재 제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체성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 비진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3분의 1만 성인인 베라라고 합니다. 남태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셔서 저도 사실 말을 듣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남태령에 일단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어요. 남태령이 커다란 분기점이다 하는 것을 저는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달라진 게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다들 여기 트위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남태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태령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여기도 가도 괜찮은 걸까, 그냥 말벌 아저씨처럼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트윗이 말벌 아저씨 시초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전까지 시위는 무조건 탄핵이다라고 하는 것만 나갔거든요. 사실 어떤 다른 것들이 주체가 되는지도 잘 몰라서 나 여기 가도 되는 건가 했는데, 알게 되면서 전장연 시위에 나가게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노동자들이 억압받는 현장에도 나가게 되고.

사실 농민분들도 노동자분이시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연대를 하고 계셨고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랄까 약간 머릿수가 되어주는 것은, 저같이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에게는 특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세네 번씩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연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태령이 제가 집회 라이프를 살게 해 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루나틱 (최다한):

저는 트위터에서 루나틱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다한이고요.

자기소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되게 아무 준비 없이 나왔는데 옆에 대표님께서 대본을 두고 계시네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체성 소개를 하자면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성소수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캐스터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집에 1인 가구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초밥을 좋아하고 드래그 필드리기에 나오는 투슬리스를 닮은 애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쌀밥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쌀이 맨날 없어서 친구들한테 다 나 쌀 샀나라는 이제 계속 안부 인사를 전해 듣고 있는 최다한입니다.

네 저는 그때 남태령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집회나 이런 거를 좀 자주 나가는 편이었는데 되게 좀 비장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농산물로 만든 건 다 좋아해서 농산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맥주입니다.

네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새벽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첫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태령으로 달려갔어요. 사실 되게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시다.

근데 가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미니 큐퍼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계속 있다가 노래도 듣고 했는데 저는 남태령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저희가 저희 말로는 이제 운동권 인수인계라고 하거든요.

그전에 이제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때는 다시 만난 세계 혹은 에스파 위플래시 이런 것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워처럼도 배우고 싶고 불나비도 듣고 싶다고 이제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남태령에서 농민가를 시작으로 해서 바워처럼도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불나비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그 남태령이 기존에 있던 운동권과 새롭게 트위터를 주축으로 하는 운동권들이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시작할 때 쌀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아까도 이제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 아까 뒤에 계시는 유채환 동지께서 길을 너무 헤매셔가지고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양곡 관리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곡 관리법이랑 최저시급이랑 저는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논의가 된지 오래됐고 긴 시간 농민들과 노동자가 싸우고 있는데,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통과가 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농민과 연대하러 가지만 알바했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해서 집회 나갈 때마다 말하는 게 전태일 열사의 '너는 나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때 아마 일기 형식으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농민과 노동자가 어떤 관련이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남태령에서의 연대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로 한강진도 그렇고 거통고1박2일 농성 때도 그렇고 계속 나가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임정득: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자유롭게 평 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문화 노동자입니다.

남태령 국면에 이제 질문지를 봤을 때 저는 남태령이 탄핵을 넘어서는 정말 어떤 어떤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유 발언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정말 정말 다양한 정체성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삼성 주장도 있었 그리고 중국인2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드러내기에 조금 싫었던 혹은 두려웠던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지금 이 탄핵 국면 정말 바뀌어 되는 이 문제와 연관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더 에너지 있게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두려웠는데 드러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사실은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공통적으로 묶이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 오늘 주제로 돼 있던 노동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묶이면서 우리 같이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데라는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고통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희망버스로 갔었을 때 저도 같이 공연을 갔었고 오피컬 희망 텐트를 했을 때도 저도 공연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많은 또 연대자들이 그곳에 왔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구나 갈구하고 있었구나 이 자리를 만나는 자리를 그래서 기존에 투쟁하고 있었던 우리 노동자분들 동지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연대자들을 진짜 활력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만난 게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나갈 것들이 많다 감사합니다.

최도은:

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3학년인 박종철이 죽은 날로부터 그냥 거리에서 항상 어슬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령 때도 그냥 갔습니다. 왜 농민에게 중요한 농업 사법을 폐기하는 정부에 맞서서 올라오신 분들이 막혀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갖고 거기는 저처럼 아무나 사회자분도 힘들면 계속 바꾸시고 아무나 말할 수 있어서 그냥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노찾사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최도은도 부르셨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유튜브로 남태령에 가서 겨우 사람들이 찾아보는 그런 가수입니다.

12월 3일 날 시민들이 국회를 막으면서 남태령에 안 끌려간 사람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떨쳐 나신 분들이 저 트위터를 하신 분들인지도 모르고 저는 트위터도 안 하고 저는 내 삶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알 필요 없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자기가 나서 그냥 노래 한 곡을 불렀더니 그냥 온 나라 사람들이 너 거기서 노래했냐 그러더라고 나 맨날 노래했는데. 한겨레 신문에 요만큼 난 게 그냥 이름 한 장 올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 보면서 이거 언론 권력이다. 집회에서 부르는 가수도 매주 집회를

하지만 안 불러줍니다.

그것도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선택하는데 선택을 거부하는 가수로서요. 1953년 3월 8일 만들어진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법, 5월10일 만들어진 근로기준법도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 농민들이 살고자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 이러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신 제가 잘 모르는 시민 남태령 연대 동지들과 새로운 분들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존재를 우리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키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함께 저항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윤옥:

저는 남태령 대첩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매스컴으로 접했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추운 날 그날 엄청 추웠잖아요. 추운데도 함께 달려와서 함께 버텨준 동지들 너무 고맙게 너무 뜨거운데 거기다가 또 세대가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20대 30대가 나와서 세상을 여니까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구나 저는 대한민국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법도 있는 자들은 안 지키고 없는 자들만 지켜야 되는 이 더러운 땅인데 더러운 나라가 정말 아직은 이런 어린 친구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우리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대는 버릇없고 자기만 알고 이런 세대로 생각을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연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거웠고 그리고 또 거똥고 31일 그때 행사하면서 또 달려와 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차피 이 동지들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함께 또 만나면 함께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로 또 만났으면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숙:

집담회 좌장이기도 하지만 집담회 패널리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하는 일은 다양한데,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라는 걸 재작년에 만들어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연구소에서는 <전망과 실천>이라는 웹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린후 한 달에 한 번 내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011년 2차 희망버스 도상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대한 구상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안을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1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맨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저에게는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사회적 연대라는 단어도 연대자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오늘 집담회를 연 취지와 관계있으니 조금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전태일을 생각하면서 전태일이 원했던 '대학생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화두를 평생 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고요. 아까 말했던, 화장실 없는 건물에서 여자는 달랑 180명 중 저 혼자였던 대학은 흥미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흥일점. 그리고 학생운동과 변혁운동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때는 한겨레 신문 창간 멤버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많이 망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였는데, 바로 소위 말하는 386세대에 제가 해당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 의문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꽤 오랫동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지만. 사실 그 기간에도 엉뚱한 일을 도모하고 펼쳤네요.

한국에 돌아와서 3년 지난 2011년 사파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 기금은 “희망을 모읍시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만들었고, “노동이 돈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성이자 또 하나의 지식인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운동으로서의 노동을 계속 고민해 왔던 사람이었고 연대 운동을 고민했는데 참 길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기대도 많이 접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기성세대’라는 말을 기각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진 세대가 아니고 계속 현 세대로서 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통점도 볼 수 있고 차이점도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점도 볼 수 있고 낯고 아주 진부하고 이런 식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제 이야기는 마치고 이제 좌장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태령에서 새로운 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 남태령이란? 이 질문을 두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참가자들이라면 왜 남태령에 나갔고 무엇을 느꼈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남겼고 무엇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임정득:

저도 그 남태령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너무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때 완전 심한 감기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 저기 가서 노래를 내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저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감기가 너무 좋겠어요.

올해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이제 영상으로만 이제 계속 봤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들이 저는 너무 좀 좋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탄핵 집회 가면 구호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속하라 그것들 말고 왜 지금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생명력이 있었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서 앞으로 기 그래서 그 뒤에 잠깐 집담회하고 이런 것들이 쪽쪽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있으면 항상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거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연 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태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도은:

아 저도 이렇게 쪽 앞에 드린 얘기랑 거의 흡사하고요.  
이제 세대 교체가 확실히 된 것 같더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연대에 오신 분들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 조직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끝없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런 속에서 이 사회를 실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집회는 올라가기 전에 3분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3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수들이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집회랑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집회에 대해서 신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남태령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루나틱:

기존에 집회를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나 기후 단체에서 하는 집회는 되게 정형화돼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인중 의뢰하고 발언하고 공연하고 발언하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남태령에서는 대본도 없고 러닝 타임도 없고 큐시트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정말 사회자와 참여자의 몫으로 거의 채운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게 집회 문화가 바뀌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알게 된 게 기존의 투쟁은 사실 노동조합이나 어떠한 시민사회 단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좀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느낌이었다면 남태령부터는 사람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 너는 귀어고 너는 장애인이고 너는 여성이야 그러면 우리는 공동 의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태령에서부터는 기존의 투쟁의 결합 방식이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소외감이 그들을 결합하는 의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게 소외 받았는데 너도 나도 소외를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소외 받았냐 하고 가리켜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혐오자들은 하나만 혐오하지 않고 그 혐오자들로 인해서 파생된 혐오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소외받았다라는 그러한 좀 공동의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런 소외감을 당한 좀 감수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겠다라는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베라:

네 저 사실 아까 말하려다가 까먹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다행히 다시 말할 자리가 주어져서 약간은 다행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했던 주제이긴 한데요.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나 자신을 드러내면 이제 공격받는 경우가 많이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들 기억해 두겠다 아시나요? 네 아시겠죠? 네 그것처럼 이제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렇게 돌아가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서 누군가가 존재를 아는구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나 자신을 숨기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도 않은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부정당하지 않았더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도 좀 놀라웠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사실 탄핵 집회 초반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스스로 말하신 분 앞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친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최대한으로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제 사실 이제는 올라간 분들한테 너 페미니스트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 정도로 이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확인만 하고 넘어갔던 존재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권영숙:

네 맞습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유 발언 중에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3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저는 신미현이라고 하고요. 소외받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경험들을 하고 다른 맥락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 때 이렇게 소외시킨 그런 악의 근원은 같은 누군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인 이야기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또 그 악에도 너무 큰 근원도 있긴 하지만 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애도 나를 소외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광장에서 페미니스트 발언자에게 야유를 했던 경우들도 있고 당장 이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가 집권했던 과정 안에서 이미 경험이 있었던 경우들도 있고요. 광장에서 모였을 때 우리는 정말 다 악의 근원인 누군가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였는데 다른 소외가 이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지금은 그런 거 다 그냥 참고 가라 이런 거 이제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저희 그런 경험 있었어요.

그런 거는 다 덮고 가라 그렇게 탄핵한 적 있었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기로 한 게 사실 사실 이게 저는 못 갔었지만 남태령에서 다들 발언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그런 경험도 굉장히 큰 몫을 한 것 같아서 거기에 간 분들한테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하여 그런 광장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내 애가 나를 소외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뻐요.

권영숙:

남태령이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을 다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2017년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했을 때 광장이 열렸죠. 최대 4차 집회 때가 12월 초였는데 12월 13일 집회 때 100만이 모였었어요. 200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광장은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컷습니다. 아시죠? 앰프 어마어마했고 조명 어마어마했고 누구나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연단이었어요. 그게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발언하는 사람들도 미리 QC도 있었고 다 정해져 있었습시다.

저는 그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하면서 저희 기금이 지원했던 사업장 11곳과 함께 박근혜퇴진노동법전면개정투쟁공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당시 21번의 주말 집회가 열렸는데 한 번도 그 무대에 못 올라갔어요.

민주노총은 올라갔지만 비정규 투쟁 사업장들이 만들어낸 공투는 그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고 마지막에 청와대 200m 앞에 가서 그 마지막 그 추운 날 집회에서도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발언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이 아니고 어떤 스님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따로 집회를 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바로 이 두 개의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논문을 썼기 때문에 면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뭐라고 했냐 하면 박근혜 퇴진 투쟁은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 아니 마스터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되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처벌해야 되는 것은, 모두 다 87년 체제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하자는 보수주의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나중에 2018년 출판 논문에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움 두 가지가 바로 제가 위에 말한 두 가지였고, 그것들은 철저하게 변방에서의 이야기였어요. 노동과 페미니즘.

근데 이번에 2024년- 25년은 계엄이라는 돌발 사태로 시작했다는것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돌발 사태였기 때문에 '비상행동'이라는 걸 만들었고 몇백 개의 단체들이 가입했고, 여기 사파기금도 들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다들 중구난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약간 있었어요.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톱다운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집회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틈이 많았던 거죠. 그 틈을 뚫고 들어갔던 게 필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운동권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부하니까.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더 준비가 됐다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틈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 '창발적인 것'이 그런 순간이 열리는데 그 창발성이 여의도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국회 앞에 앉아서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거였어요. "다만세"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노래가 변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탄핵 1차와 2차를 끌어냈잖아요. 12월 14일 2차 소추 되면 다 된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키워나가면서 더 치고 나가야 될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을 시키면 된다는 게 계엄하에서 진단이자 해법이 맞습니까? 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진부하지 않은 것, **창발적인 것이 일어난 것이 남태령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어찌보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어요. 역사는 나중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집회가 거대한 연단과 조명발 속에서 큐시트를 두고 진행됐던 톱다운의 집회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운동 조직들이나 단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무명의 아까 나왔던 소외된 자들과 발언권이 없었던 자들, 개인들이 뛰어나와서 나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를 했던 건데 그게 남태령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날 작은 트랙터 농기구 위에 폴짝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그걸 신경 쓰면서 봤거든요. 저 연단의 높이는 얼마일까?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게 제가 봤던 남태령의 의미였지요. 사람들 개개인은 용감해졌고 용기를 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해방적인 것 창발적인 것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 루저일 수도 있는 낙오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혹은 또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왜 정체성을 말했느냐 하면 바로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태령은 탄핵 국면을 완전히 바꿨던 어떤 새로운 것이 가능했던 그러나-제가 어디다 표현했는데-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이 창대하길 바란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입니다. 시작은 아직 여기까지 그러나 앞으로 갈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 덧붙이면, “농민도 노동자 아닌가” 이 표현과 접근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이렇게 존재들이 교차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단지 교차를 넘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뭔지에 관해서 생각을 더욱 많이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최다한:

사실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남태령에서는 처음에 여성으로 호명이 됐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여성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젠더 퀴어일 수도 있고 소녀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는데 <소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퇴진 당시에 촛불 소녀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잖아요. 유모차 부대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점이 ‘촛불소녀’라는 말은 촛불을 든 소녀를 대상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소녀성에 주목하여 그 사람이 시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소녀다 라고 명명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나왔다면은 저희는 동지라는 말을 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남태령 이후에 이 2030 여성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라는 기사가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여성들은 각자 삶의 주체로서 모든 곳에서 나름의 투쟁을 하고 있었고 2016년이죠.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온라인 트위터로 주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회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인식 수준과 인권 감수성을 높여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없다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이 주목을 하지 않다가 남태령이라는 굉장히 흑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서야 언론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여기 있어요. 이제 여성이라는 것은, 그 삶이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고 또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되게 고도화된 방법으로 폭력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 고도화된 폭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태령을 기점으로 해서 되게 바랐던 것은 박근혜 퇴진 당시에 촛불 소녀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키세스 소녀라든가 남태령 소녀라는 발언을 되게 경계하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동지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호칭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

‘말벌 아저씨’는 괜찮아요 처음 나왔을 때가 트위터에서 ‘퀴어 소녀 말벌 아저씨’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합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광장에 나서시는 저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그런 성별이 들어간 호칭을 별로 반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저희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이제 먼저 투쟁하셨던 동지들이 되게 궁금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서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어떻게 불러야 하나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서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영숙:

남태령과 노동 혹은 노동 연대에 관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거통고 조선헌청지회의 한화 본사 앞 농성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 아래 거제 한화오션에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나윤옥:

노동은 내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어느 순간은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노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아서 그 돈 쓰면서 살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은 많지 않고요. 저는 남태령 동지들 너무 반갑고요. 아까 제가 너무 공감됐던 게 “농민도 노동자”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권영숙: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하고 최저임금이 닮은 꼴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농민도 노동자라는 말을 더 구체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87년 이전에 '저임금 저곡가'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곡가 체제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자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를 유지하는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국가가 대놓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약간 변화했죠. 노태우 정부 때 임금을 국가가 통제해서 매해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정책은 87년 민주화 이후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한 거였고 87년에 제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곡관리법과 노동자 최저임금제도는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경제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데 노동자와 농민의 노동을 갈아서, 이 체제와 국민총생산 GNP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 총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태령X노동을 이야기하면서 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제 패널 이야기를 약간 줄이면서 마지막 남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유발언 신청자들의 현장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석자:

저는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대학원생 노조에 가입한 이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대학원생으로서 그리고 또 귀어로서 느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선배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거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어로 있을 때 아니 귀어로 있고 귀어 커뮤니티 있을 때 보통 만나는

것들은 저희 또래 20대 30대지 그 이후는 사실 그 트위터라는 매체 특성상 아니면 저라는 세대의 특성상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런 단체를 모르고 사실 그런 단체에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운동권 단체에 대해서 또 멀리 배척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도 하고 사실 쿼어 단체들은 사실 사회로부터 배척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런 사회 운동하는 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결국 소외받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결국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그리고 이전부터 87년 노동자 투쟁 때도 쿼어가 연대했었다고 저는 일단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러한 쿼어분들과 우리들이 다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그래서 서로 다 연대가 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런 추진력을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이번 탄핵 광장에는 개인들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그 개인은 사실은 원자일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가 조직화되는 걸 거부한다면 조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선택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딜레마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남태령의 연대자들한테 사실 궁금한 게 이 지점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란해서 퍼져가서 어딘가에서 나의 운동을 하거나 연대를 지속하면 좋겠습니다. 행사 취지에도 썼지만, “혼자로서는 두렵지만 우리 함께라면”. 근데 여기서 “함께”라면을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함께 던진 것입니다.

임정득:

12월 해 넘어가는 그때 거통고 희망버스 갔을때 뒤에 노조법2,3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함께해 주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노조법2,3조는 금속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투쟁하는 주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노조법2,3조 개정안이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많이 수정이 됐고 특수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2030이라고 불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이 젊은 2030이라고 얘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과 같이 가려면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가 되는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싸워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충분히 많고 그거는 혼자 개인으로 나 가고 싶어하는 문제랑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모였을 때 더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도은: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잘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국가가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곤궁한 삶을 살고 있고 여유롭지 못한 노동 생활과 힘든 노동 속에 다 자빠져 있는데, 남태령에서 만난 동지들이 우리 사회에다가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불완전한 노동에 빠져 있고 불완전한 삶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남태령 동지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까 나운옥 동지 활동했던 거제 조선소만 해도 처음에는 거제 조선소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운옥 동지처럼 저임금의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87년에 나도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고임금 노동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은 정규직에게 급여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의 임금이 자꾸 자본을 잠식해 오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규직을 뽑지 않았습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는 법이 만연화가 된 게 1998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 모두들 독재 체제보다 더 진보적인 DJ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많은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윤석열이 물러난 자리에 어느 정부가 올지 자신하지 못하지만 또 끝없이 우리를 계층별로 나누고 계급별로 나누고 우리를 차등화해서 또 쥐어짜라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본에게 더 거대하게 쌓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동지들처럼 기존의 시스템에 거부하는 동지들이 그 모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로 권 선생님 계시는 연구소의 활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임금 한 푼 올리고 끝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더 크게 요구하고 더 크게 자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그런 조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운옥:

저는요. 여태까지 살면서도 그렇고 조선소 안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정말 평등하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린 친구들 툭툭 튀는 생각하고 같이.

베라:

잠깐 미조직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집회를 다닌 지 꽤 되었는데요. 예전에 조직을 예전에는 이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탈퇴를 하고 현재는 정말 무소속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제 말벌아저씨라는 호칭이 맞는 상황인 것 같기도해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운동)하다가 대학 안 간 걸 보시면 저는 사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걸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좋은 사람이고요.

일단 단체에 소속된 분들 활동가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선 이제 그런 운동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포용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관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루나틱:

저는 마지막으로 뭘 말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일상이 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일하다가 다칠지 모르는데 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투쟁이 일상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베라 동지랑 임정택 동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되는 것 조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투쟁을 해야 돼요. 조직이 되든 안 되든 그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만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대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도 쉬운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대가 뭔지 좀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 센터에 전화하는 게 되게 무서우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민주노총이 초대장 보내듯이 저도 초대장을 보냈거든요. 나 혼자 신고를 못하겠으니까 같이 있어 달라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다음 날에 모든 일정을 빼고 달려와 줬어요.

그래서 저는 연대라는 것이 꼭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세종호텔이 전장연에 가고 거통고가 뭐 이런 데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연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연대라고 생각하고 그 연대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도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연대해 준 거 그 기억으로 계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억이 개개인한테 다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대라는 것은 약간 마약과 같아서 끊을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좀 개개인의 경험이 되게 존중받고 지속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권영숙:

이제 사파기금의 과정에 대해서 느꼈던 걸 간단하게 말하면, 13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시작은 창대했는데 그것은 이제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건 당사자주의고 연대를 누구에게 한대라는 거 차라리 대상화하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투쟁의 당사자 투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큰 힘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행동으로 결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파기금의 지원을 5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투쟁이 89회입니다. 소액 지원이나 물품 유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지금 연대합니까? 생계가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일상이 연대가 되고 일상이 투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함부로 약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 역시 그런 점에서 휘발되고 이례적이고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투쟁과 단단히 결합하면서 지속력을 갖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사회적 연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접속을 넘어서, 지금 저는 접속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접속을 넘어서 접합을 하고 결합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하고 아마도

탄핵운동은 수그러들 것이고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접어드는 가운데 연대는 얼마나 강한가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강한가는 무엇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 지점들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담회를 마무리지어야겠습니다.

파시즘은 누가 만들었죠? 히틀러가? 아니요. 사회가,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배제적인 민주주의, 망가진 민주주의가 파시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시즘은 체제의 산물이라고 봐요. 차별이 체제의 산물이듯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대한 이 시스템인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의 차별과 혐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의 교차성을 넘어서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터 벤야민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피레네에서 잡혀서 나치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이 중요한 철학자가 한 말이, “지배자들이 비상과 정상을 논하겠지만 언제나 피지배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비상적이었다”, 그렇죠 비상 사태였죠. 그리고 그가 했던 더 좋은 말은, “오직 희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모토가 “희망을 모읍시다”였는데요. 여전히 희망을 모읍시다를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관 속에서 낙관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얼굴들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